Monthly Bultube

뉴미디어 시대, 수많은 불교단체와 스님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의 범람 속에 묻혀있는 콘텐츠들이 많다. 무엇을 보아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유튜브 리뷰를 시작한다. 유튜브 불교 콘텐츠를 찾아 오늘도 헤메는 불자들을 위한 유튜브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신 행

BTN 유튜브 채널,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

불자 탤런트인 강부자 씨는 독실한 불자다. 이러한 강부자 씨의 신행담은 많은 불자들에게 같은 불자로서 동질감과 함께 감동을 주곤 한다. BTN불교tv에서는 강부자 씨의 다양한 신행담을 다룬 방송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유튜브 콘텐츠인 유튜브 쇼츠(Shorts)에도 이러한 신행담을 편집해 업로드한다.

2월 27일 BTN불교tv가 업로드한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는 24만 5000명이 지켜봤다. 쇼츠 콘텐츠가 보편화되지 않은 불교계 뉴미디어 상황에서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강부자 씨는 영상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다 들리게 천수경을 틀어놓는다. 아침 예불을 하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차에서는 염주를 돌리며 기도한다"며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능력에 맞게 순리대로 되게 해달라고 한다. 잘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를 본 이들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사는 지혜 대단하다", "능력에 맞고 순리대로 사는게 지혜롭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4200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youtube.com/shorts/iEmFLk2ks6E



일당백 채널, '불교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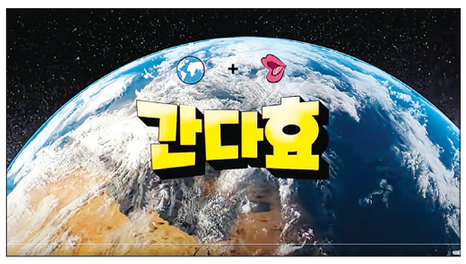
BBS 유튜브 채널,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BTN 유튜브 채널, '탤런트 강부자가 아침마다 천수경을 듣는 이유'



BTN 유튜브 채널, '광우 스님의 소나무'



간다효 채널,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

강 연

BTN 유튜브 채널, '광우 스님의 소나무'

코로나 시기 오프라인 강연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불교강연 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BTN불교tv의 인기 프로그램인 '광우 스님의 소나무'는 유튜브 내에서도 불교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소나무는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의 줄임말로 화계사불교대학 교무인 광우 스님은 뉴미디어 설법사로 우리 삶 속의 다양한 사연에 대해 즉문즉답한다.

올해 2월 25일 몰아보기 방식으로 업로드된 '평소에 마음을 잘써야 하는 이유'는 28만 4526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7200여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최근 유튜브 시청은 '몰아보기' '빠른속도 보기'가 보편화되고 있다. 총 2시간 6분 분량이지만 회차를 나누지 않기에 1.5배속 등으로 쾌적하게 전체 법문을 들을 수 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 특징은 방청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진행하는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행복하고 싶은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강조한다. 댓글에서는 "저는 스님 말씀 듣고 한번 웃었다. 스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 귀담아 듣게 된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큰 복을 얻는다". "스님이 법문을 재미있게 잘 풀어 얘기해 주시니 이해도 잘되고 깊은 깨달음이 마음에 느껴진다" 등의 댓글이 남겨졌다.

youtu.be/s1M9yZ1Bbz4

법 문

BBS 유튜브 채널,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아아...그리운 큰 스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건 옛 연인만이 아니다. 불자들은 인연이 닿은 스님들의 생전 모습을 한번씩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아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사찰에서 녹화영상을 통해서만 보던 때에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유튜브에는 다양한 큰 스님들의 생전 영상이 있다. BBS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2월 26일 업로드한 '법정 스님 2006년 봄 법문' 중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됩니다'는 22만 1422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5800여명이 좋아요를 남겼다.

법정 스님은 법문 전 '카메라, 뒤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대중들은 함박웃음을 터트린다.

스님은 "사람은 무엇에 쫓겨서 살아서는 안된다"며 "사람은 특히 시간에 쫓긴다"고 지적한다. 스님은 "물리적인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은 무한하다. 사람은 이런 심리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채널 댓글은 다른 영상들보다 많았다. "법정 스님 그립습니다. 스님 안계신 작금의 불교계에 밝은 빛줄기 내리길 발원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법정 스님 그립습니다." "법정 스님, 은근히 멋지시네요. 시작하자마자 빵터지는 멘트, 저도 기립박수 보내드렸습니다." 등등이 남겨졌다.

youtu.be/XkYH_aXWx9U

인 문

일당백 채널, '불교가 좋다'

유튜브 일당백 채널은 '일생동안 읽어야 할 백권의 책'이라는 지적인 삶을 위한 교양서적 혹은 시사내용 소개의 장이다. 팟캐스트와 병행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불교가 좋다'라는 책에 근간하여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불교가 좋다'는 일본 인문학계의 중심인 나카자와 신이치와 가와이 하야오의 대담집으로 두 구루의 불교에 대한 대화를 기록하여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불교를 전한다. '불교가 좋다'에서는 종교, 철학, 심리학, 문학, 과학, 그리고 성담론 등에 유쾌하게 파고든다. 아시아인의 무의식에는 불교가 숨겨져 있음을 강조하면서,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이 바로 불교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율 중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성관념도 드러낸다.

출연진 중 문학자인 정박 씨가 책을 보통 1부와 2부로 나누어 해설하는데 문학,역사,정치,철학,종교,미술 전반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을 곁들인 해설이 일품이다. 1부에선 책의 내용보다는 책을 쓴 작가의 내력, 책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책의 본문 중에서 1부의 배경과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한다.

진행자인 정영진 씨나 패널인 정미녀 씨가 좀더 쉽게 풀어달라고 하며 일반인들이 갖기 쉬운 질문을 던지거나 시간을 채근 하는 모습 등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

2021년 12월 17일 업로드 된 1부 '왜 현대인들이 불교 사상을 필요로 하는가?'는 16만 7486회 조회수(2022년 3월 31일 현재)를 기록했으며, 2021년 12월 19일 업로드된 2부 '양자역학은 불교의 원리를 담고 있다?' 편은 15만 4413회의 조회수(2022년 3월 31일 현재)를 기록했다.

댓글로는 "크리스마스와 불교의 조합이 놀라웠다", "불교의 심묘함은 종교를 떠나 누구나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 "불교를 제대로 알면 논리적이며 과학적이란 걸 누구나 알수 있다" 등의 호평이 나왔다.

youtu.be/ua05SUU-J20

사 회

간다효 채널,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

역사 전문 유튜버인 간다효는 구독자 35만명을 자랑하는 크리에이터다. 간다효 채널은 '효기심'이라는 112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채널이 모태다. 간다효에서는 효기심과 달리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역사의 스토리를 과감없이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채널에서 3월 20일 업로드한 '도대체 티베트불교는 무슨 종교일까?'는 불과 10여일만에 18만 1555회 조회수(3월 31일 현재)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시청했다. 간다효는 기원 후 617년 토번제국부터 티베트 역사를 다룬다. 제33대 토번 군주인 송첸 캄포 시기의 치세부터 시작하여 당나라와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 제국의 통치체제 일환으로 불교가 도입되고 티베트의 토속신앙 등과 습합되어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형성됨을 설명한다. 간다효는 1239년 몽골제국과의 관계에서 토번제국 내 티베트불교계의 영향력을 본 몽골 측의 정책으로 티베트불교계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티베트 불교계가 분화된다고 설명한다. 이후 현재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베트 불교 종파인 겔룩파가 나오게 된 것 까지 영상을 마무리 한다. 이어 간다효는 3월 21일 '위태로운 티베트의 실제 상황'을 통해 현재 티베트와 티베트 불교계의 상황을 알린다.

불교계 밖의 유튜버 영상이기에 댓글들도 보다 활발하게 달렸다. "티벳과 몽골이 거리가 먼데도 똑같이 샤머니즘과 불교가 습합된 이유가 있었고 티베트 불교인 이유가 있었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티벳출신 친구가 있다. 우리가 6.25로 힘들 때 모택동이 쳐들어와 나라가 없어진 상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youtu.be/2HygfBrw-Ug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스님! 커피한잔 주시면
아주 작은 염불에도 엄청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로 화답하는 디지털 소리 체험을 드립니다.

주의 : 한국법당 시설들 거의 중국, 베트남 심지어 메이커를 지워버림
본품 : 100% MADE IN KOREA 특징 : 고가제품, 고장없음, 소리월등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